

대한치과의사협회 송정동 신회관 입주식

지난달 14일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송정동
신회관 입주식을 3층 강당에서
김정균 치협회장과 변석두
대의원총회의장, 김동순 치정회장,
이종수 고문등 각계인사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개최되었다.



정문 현판 제막식

5시에 정확히 시작된 이날 행사는 김정균 치협회장과 변석두 대의원장, 김동순 치정회장등을 중심으로 많은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정문의 현판 제막식을 가졌는데, 동판을 덮은 하얀 천을 협회장이 벗겨내자 사람들은 일제히 박수를 치며, 치협의 발전을 기원하였고, 화강암으로 장식된 치협 회관을 보면서 이제야 번듯한 내집을 마련한것 같다며, 기쁨을 표하기도 했다.

이어 현관 1층에 마련된 오색테이프 커팅식이 김정균 치협회장과 변석두 대의원장, 김동순 치정회장, 지현택 FDI상임이사, 김용관 학술원회원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제히 테이프를 커팅 본격적인 송정동시대 개막을 알렸다.

3층 대강당에서 열린 입주식에서 김정균 치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치과계의 숙원사업을 이제서야 해결하게 되어 기쁘다』고 말하며, 이제까지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목례가 있었다. 계속하여 김정균 치협회장은 『최근에서야 미약하나마 구강보건사업이 국가정책으로 결정, 법으로 체계화 되는등 성과가 있었지만 앞으로 의료시장 개방에 대비 치대증설문제, 인력수급문제등 해결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다』고 지적, 이제 새로운 회관이 마련된 만큼 새로운 각오로 치과계가 일치 단결해야 한다고 강조하였고, 한해동안 많은 논란을 빚어왔던 전문의 문제를 진정 치과계를 위한 길이 어느길인가, 잘 생각해 조속히 마무리 짓자고 당부하였다.

또 지방화시대를 맞아 치과의사들도 의회등에 진출 정책입안과 결정과정에 참여 지역 주민에게 봉사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하였다.



오색 테이프 컨팅 장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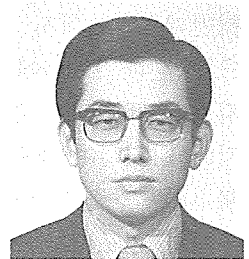
변석두 대의원장도 축사를 통해 송정동 시대를 통해 송정동시대의 영원한 발전을 축원, 송정동 회관 마련을 계기로 더욱 힘을 합쳐 치과계 앞날을 헤쳐나가자고 다짐했다.

이어서 이기택 건립위원장은 경과 보고를 통해 지난 1960년 11월 1일 낙원동에 처음으로 자리잡은 후 69년 영등포 시대를 지나 송정동 시대까지 많은 시간이 흘렀다고 언급, 그동안 구회관의 협소함과 여건이 불충분한 상태로 말미암아 회관 이전이 숙원사업으로 대두되었으며, 막상 실행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히고, 마침내 노력의 결실이 지난해 12월 7일 현재의 신회관으로 이전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지하철 성수역에서 도보로 5분거리로 대지 4백평 지상 3층, 지하 1층, 연건평 800평 규모로 3개월간의 개보수공사를 통해 빙축열시스템을 통한 냉난방시설을 마련하는등 모든 시설들을 최신시설로 완벽하게 교체했다고 보고했다. 또 현재 1층을 치협사무국과 치의신보, 2층에는 서울지부, 성동지부, 대한치과교정학회, 대한치주과학회, 대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등이 입주 할 예정이며 대한치과 의사 컴퓨터 동호인회는 이미 구납 22일 대한여자 치과의사회는

입주식 당일날 이사를 완료했다. 이어서 김정균 회장을 중심으로 내빈들이 둘러싼 가운데 3단계의 잘라 분위기가 한층 고조 되었고, 김동순 치정회장의 선창으로 회관입주 축하건배를 제의 합석한 내빈들이 일제히 건배를 외쳤다.

치과기재학회 94년도 정기총회 및 제 83회 학술집담회

지난 13일 대한치과기재학회(회장 이한무)는 신라호텔에서 94년도 정기총회 및 제 83차 학술대회를 50여 회원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회장 이한무

이날 열린 94년도 정기총회에서는 이한무 현 회장을 유임 시켰으며, 오안민, 정청, 김경남부회장과 이장훈, 김정균감사 역시 유임시키다.

한편 전기이월액 7백 90여만원, 회비 1백만원, 찬조금 5백만원등으로 편성된 1천 8백 40여만원의 95년도 새해 예산안을 승인하였으며, 사업계획으로는 회원정리 및 회비징수, 학술집담회 및 회원보수교육, 학회지발간등을 확정하고, 전년도 결산 및 회무보고를 이의없이 통과시켰다.

한편 이날 함께 개최된 제 83회 학술집담회에서는 「Cosmetic Dentistry : Principle and Practice」에 대한 특강을 비롯하여 석사 및 박사학위 논문발표가 진행됐다.

학술위원회 편집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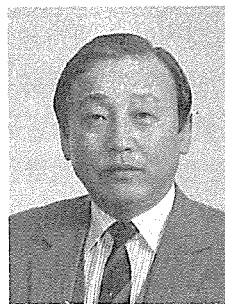
지난 25일 12시 치협 학술위원회는 소피텔 엠베서더 호텔 주얼룸에서 학술부회장을 비롯한 여러 학술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편집회의를 개최하였다.

총 14명의 위원중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작된 편집회의는 위원장의 개회선언에 이어 이상래 학술부회장의 인사와 위원장 권영혁 학술이사의 인사가 있었으며, 전회의록을 검토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날 다루어진 안건으로는 5가지가 있는데 첫번째로 「협회지 표지디자인에 관한 사항」으로 현대의학사에서 제출한 여러 안중 2가지를 선택하여 의견개진한 결과 현 1월호 표지의 디자인이 채택되었으며, 두번째로 「협회지 내용 중 특집에 관한 사항」으로 종합학술대회 심포지움 특강내용을 6월호까지 게재하기로 하였으며, 그 이후는 지금까지의 관례대로 해당학회에서 분담하여 게재하기로 결정, 3개월 전 각학회장 앞으로 의뢰하기로 하였고, 칼라제작에 관한 예산 인상을 금년 대의원 총회에 산정하기로 하였다. 세번째로 「원저게재

범위 및 순서에 관한 사항」으로 원저의 내용을 협회지 투고규정에 부합되게 해당학회별 위원에게 논문심사를 의뢰후 게재하기로 하였으며, 추가인쇄 및 특수인쇄(colour)에 따른 비용은 저자에게 게재료를 부담시키기로 하였다. 네번째로 「협회지 내용중 보도자료에 관한 사항」으로 학술부분에 관한 소식을 가급적 많이 게재하자는 의견에 따라 보도자료 수집을 더욱 활성화하고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게 국내외 학술분야 소식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소식을 균형있게 게재하기로 하였다. 다섯번째로 「대한치과의사협회지 약자제정에 관한 사항」으로 각학회 및 과거논문에서 사용되었던 약자를 원칙으로 하되 통일된 것이 없을 경우 국문 : 대치협지, 영문 : Journal Kor Dent Ass.으로 사용하기로 하였으며, 협회지 상단 흘, 짝수 페이지에 국·영문 약자를 게재하기로 하였으며, ISSN 문헌번호도 사용하기로 하였다.

민병일 교수 월남서 무료인술



민병일 교수

지난 7~23일간 월남 호지밍市 남서쪽 85km지점에 위치한 벤첸省的 省立병원에서는 한국의 閔丙一·金明鎭 서울치대교수와 朴瑛郁 안양중앙병원 치과과장등 3명은 일본구순구개열협회의 초청을 받아 한일합

동으로 제 2회 월남 구순구개열환자 무료수술



학술위원회 편집회의 장면

활동을 펼쳤다. 월남 구순구개열환자에 대한 무료시술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펼쳐져 화제가 되고 있다. 일본의료팀 20여명과 함께 무료시술에 나선 関丙一교수등은 이번 시술활동에서 14명의 월남인 환자를 수술, 좋은 성과를 낸것으로 알려졌다. 関丙一교수는 「과거 선진국에서 배우던 시절에서 가르치고 베푸는 단계가 되었다」며 「그곳에서는 한국의료진의 시술성고가 더 훌륭하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関교수는 「앞으로도 건강이 허락하는 한 무료시술활동을 계속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카톨릭치의회 제 12차 정기총회

지난 연말 강남성모병원에서 서울카톨릭치과의사회가 제 12차 정기총회를 열어 신입회장에 윤희철씨를 선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신입임원으로 김기혁, 라운영씨를 부회장에, 총무에 이준규씨, 봉사에 변영남씨, 전례에 김영재씨, 감사에 김부곤, 이주봉씨를 각각 선임했다. 또 명예회장에는 기창덕, 조재길, 허만욱, 김기주씨가 추대됐다. 이날 총회에서는 앞으로 복음선교, 빈민무료진료, 신자재교육, 월조찬모임의 활성화등에 더욱 매진해 나갈것을 결의했다.

치과위생사협회 회원관리시스템 완료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김숙향)는 올 상반기중에 회원관리시스템을 완료해 보다 효율적인 회무운영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회장 김숙향

치과위생사협회는 이미 신상관리 프로그램 및 테스트를 완료했으며, 전산업무의 코드화로 인한 신상등록은 50% 정도 진척된 상태이다. 또한 보수교육관리는 프로그램완료테스트가 90%까지 진척되어

학술대회 이전의 전회원 보수교육현황을 파악할 수 있으며 회비관리의 경우도 70%까지 작업이 진행됐다.

또한 이번 95년 한해는 회원복지향상을 위해 직장연금보험제를 도입하고, 기존의 보수교육방법에서 벗어나 근무기관별로 회원을 분류하고 다양한 연제로 자주 실시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높은 수준의 교육기회부여를 위해 외국 우수교육기관과의 교환교수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대한치과교정학회

제 24권 4호 교정학회지 발행

대한치과교정학회(회장 장영일)는 대한치과교정학회지 제 24권 4호 (통권 47호)를 발행하였다.

이번에 발행된 겨울호 책자에는 「하악 3절치 증례의 교정학적 고려 사항(장영일, 백승학, 박경진)」를 필두로 총 17편의 원자가 220여 페이지에 걸쳐 수록되어 있다.